



대만 감독당국, 생명보험회사 대상 규제 강화

채원영 연구원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건전성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안을 발표함.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 판매 급증으로 인해 시장위험이 확대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IFRS17 도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FSC는 상품 구조조정, 자본구조 강화,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 IFRS17 도입을 위한 작업반 구성 및 특별준비금 추가 적립 등의 규제안을 발표함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이하, 'FSC')는 22개 대만 생명보험회사와 회의를 개최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건전성 강화 및 자본확충 등 규제 강화안을 확정함
 - FSC는 지난 5월 22일, 금융감독위원장과 중국생명보험과 푸본생명보험, 케세이생명보험 등 22개 대만 생명보험회사 CEO가 참석한 “생명보험업계리더 심포지엄(壽險業負責人座談會)”을 개최함
 -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생명보험시장 내 과열경쟁, 낮은 자기자본비율, IFRS17 도입 대응 방안 등 생명보험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 논의 결과, FSC는 보증이율의 현실화,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하한 설정,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확충 요구, IFRS17 준비사항 보고 의무화 등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급증으로 인해 시장위험이 확대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IFRS17 도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생명보험산업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저축성보험의 보증이율이 상승하고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하여 환율 및 이자율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은 약 3조 대만 달러 증가함
 - 대만 생명보험산업 해외투자 비중은 2016년 62.84%에서 2019년 5월 68.73%로 확대됨¹⁾
 - 또한 2018년 12월 말 기준 대만 생명보험산업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14%²⁾로 낮은 수준을 보여 FSC는

1) FSC(2019. 5), “Indicators of Insurance”

2) 2018년 말 기준 대만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Cathay life 7.2%, Fubon Life Assurance 7.0%, Shin

생명보험회사들이 IFRS17(2025년 도입 예정³⁾) 도입 전에 특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함을 강조함

- 이와 관련하여 FSC는 상품 구조조정, 자본확충 및 자본계층화, 환위험 관리 능력 및 자산-부채 관리 능력 제고, IFRS17의 원활한 도입 준비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⁴⁾
 - FSC는 생명보험회사가 저축성 상품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증이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한편 2018년부터 FSC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을 0.25% 상향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상품 구매 유인을 높임⁵⁾
 - 또한 FSC는 계약가치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Death Benefit-To-Policy Account Value Ratio)에 대한 하한을 설정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이 저축성 상품 및 투자연계형 상품 판매를 축소하도록 유도함
 - FSC는 생명보험 상품이 저축이나 자산관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함⁶⁾
 - 한편 FSC는 생명보험회사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3%로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자본을 확충하거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또한 RBC2의 가용자본을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 등으로 계층화할 예정임
 - FSC는 생명보험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규정을 엄수할 것을 강조하고 해외투자 이외에도 대만 내 공공투자사업 및 고령화 관련 산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함
 - FSC는 2018년 9월 27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환율위험계수를 기존 4.25%에서 6.61%로 상향조정함⁷⁾
 - 마지막으로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는 IFRS17 작업반을 구성하고 IFRS17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FSC에 보고해야 함
- FSC는 금번 규제 강화로 생명보험산업의 금리민감도와 환위험을 축소하고 자본구조를 강화하며 원활한 IFRS17 도입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FSC는 계약가치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FSC는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신상품이 다수 출시⁸⁾ 될 것으로 전망함 **kiri**

Kong Financial Holding Co., Ltd 2.6%임

3) 시행일 기준 3년 유예

4) FSC(2019. 5. 22), “金管會召開壽險業負責人座談會”

5) TII(2019. 7. 22), “2018 Taiwan Life Insurance Market Overview”

6) Taipei times(2019. 5. 23), “FSC to impose stricter regulations on life insurers to improve finances, risk”

7) FSC(2018. 9. 27), “金管會調整107年度保險業資本適足率之計算”

8) 2018년 기준 대만은 65세 인구가 14.0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8년 안에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만 재보험회사 및 보험회사들은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 및 장기요양보험 개발을 확대하였으며, FSC는 보장성보험 상품 승인 과정을 간소화함(한성원(2018. 8. 27), 「대만 재보험 시장의 현황」, 『KiRi 리포트』)